

K-제약사, 신약 제형·용량 다양화... 글로벌 시장 정조준

한미약품 롤론티스 신규 제형 추가 GC녹십자 알리글로 SC 개발 추진 비보존제약 어나프라주 입지 강화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자체 개발한 신약의 제형 변경, 용량 다양화 등 후속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산 신약 확보뿐 아니라 환자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충족 수요를 공략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극대화하고 있다.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14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롤론티스' 오토인젝터 주(성분명: 에플라페그라스티프)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롤론티스는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에 쓰이는 바이오 신약으로, 이번 신규 제형은 기존 사전중전형 주사제(PFS)를 개선했던 '자동 주사제'다. 바늘이 보이지 않는 펜 형태로 설계돼 환자가 버튼만 누르면 일정한 용량이 자동으로 투여된다. 주사 바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면서 자가 투여를 가능하도록 해 복약 순응도를



'알리글로'

/GC녹십자 '롤론티스(미국 제품명: 롤베돈) 프리필드시린지주.



/한미약품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롤론티스는 제33호 국산 신약인 동시에 한미약품의 혁신 성과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한미약품이 독자 구축한 약물 전달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첫 글로벌 신약이다. 약물 반감기를 늘려 투약 주기를 줄이는 기술을 상용화한 것이다. 2022년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품목허가를 받아 롤베돈이라는 현지 제품명으로 발매되고 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하는 제약기업과 롤론티스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중동 시장 공략에도 시동을 걸었다.

앞으로 한미약품 측은 차세대 고부가 가치 제형 확보로 신성장동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GC녹십자 역시 주력 품목인 '알리글로'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다지고 있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국산 혈액제제로는 처음으로 2024년 7월 미국으로 진출한 후 1년 만인 2025년 7월 미국에서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알리글로 2025년 연간 미국 매출은 1511억원(약 1억600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규모다.

오는 2028년 알리글로 연간 매출 3억 달러 달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GC녹십자는 알리글로의 미국 시장 안착에 주력하는 한편, 정맥투여용 알리글로의 투여 편의성을 개선한 피하주사형(SC) 면역글로불린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응증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소아 대상 미국 임상 3상에 진입해 있고 올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27년까지 소아 연령으로 허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GC녹십자 측은 "고마진 제품의 성장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 본격화까지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보존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염산염)'는 용량을 다양화하며 처방 입지 확대에 나선다. 어나프라주는 제38호 국산 신약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됐다. 100mL 단독 용량으로 공급돼 왔으나 올해 들어, 20mL가 출시됐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필요에 따른 유연한 처방을 반영한 것이다. 10mL, 5mL, 2mL 등 소용량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며 오는 2027년까지 고농도 주사제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만 큼이나 중요한 것이 출시 이후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이는 고도화 전략"이라며, "제형 변경은 특허권 방어와 더불어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 요소가 되는 만큼, 국산 신약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애경산업, 헤어케어 브랜드 폴란드 진출

'시카라보·알피스트' 현지 스토어 입점 독일 등 유럽 주요채널 추가 진출 검토

애경산업은 K헤어케어 브랜드 '시카라보'와 '알피스트'가 폴란드 대표 드러스토어 로스만 폴란드 온·오프라인에 입점했다고 15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지난 3월 시카라보 5종, 알피스트 4종 등 총 9종의 제품을 처음 선보였다. 시카라보는 두피를 피부처럼 관리하는 최신 뷰티법인 '스키니피케이션'을 반영한 두피 관리 제품군이다. 시카 성분은 활용해 민감 두피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준다. 알피스트는 자연 유래 성분을 갖춘 비건 제품군으로 두피 유수분 균형 관리에 중점을 뒀다.

이번 입점은 시카라보와 알피스트



폴란드 현지의 로스만 폴란드 매장에 시카라보와 알피스트 매대가 설치되어 있다. /애경산업

가 유럽 주요 채널로 처음 진출한 사례다. 애경산업은 기능성 제품, 천연 성

분 등을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를 적극 공략해 향후 유럽 헤어케어 시장을 아우르는 브랜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애경산업은 폴란드 시장 내 판매 성과와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 바디케어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로스만 그룹이 진출한 독일, 체코, 헝가리 등 인근 국가 및 유럽 주요 드러스토어·뷰티 채널로의 추가 진출도 검토할 계획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폴란드는 기능성 헤어케어와 비건 제품 수요가 동시에 늘고 있는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K-헤어케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LG생활건강, 협력사 납품대금 인상 추진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상황 함께 극복

LG생활건강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 단가를 조정해 협력사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LG생활건강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 납품대금을 신속하게 인상해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협력회사와 함께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15개 협력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 59건의 납품 단가를 25억6000만원 인상했다. 이달부터는 순차적으로 47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1만 6000여 건 계약에 대한 납품대금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 올해 총 인상액은 최대 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LG서울역빌딩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이선주 LG생활건강 사장(왼쪽),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생활건강

이선주 LG생활건강 사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사들이 차질 없이 물품을 납품해 준 덕분에 LG생활건강이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며 "상생과 공정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비롯한 다양한 동반성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골든 픽 해차'

아모레퍼시픽은 고급 차(茶) 브랜드 오설록에서 '2026년 골든 픽 해차'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오설록은 이른 봄의 생명력을 담은 수제 명차 '일로향', 곡우가 지나기 전 채엽한 명차 '우전', 브랜드 대표 녹차 '제작' 등을 구성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기존 잎차 중심의 해차 제품군을 확장해 고급 말차 제품군인 마스터즈 말차, 프리미엄 말차 등을 내놓는다.

오는 5월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에서는 전용 해차를 공개한다. 티 로스터리에서는 산지에서 갓 가공한 녹차 해차를, 말차 스테이션에서는 즉석에서 갈아 낸 말차 해차를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온코닉테라퓨틱스, 네수파립 연구성과 공유

AACR 참가... 우수한 항종양 결과 확보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오는 17~22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 연례 회의 2026(AACR 2026)에서 '네수파립'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네수파립은 차세대 합성치사 이종표적 항암제 후보물질로, 암세포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파프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한다. 현재 쥐장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위암 등을 적응증으로 한 4개의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네수파립 데이터는 소세포폐암 세포 실험에서 기존 파프저해제로 알려진 올라파립 대비 최대 133배, 이리노테칸 대비 약 25배 높은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다. 동물 모델에서도 약 66.5%의 종양 억제율을 기록해 비교군 대비 개선된 결과를 확보했다.

쥐장암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네수파립은 BRCA 변이가 없는 모델에서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보이며 쥐장암 표준치료제인 젠아브락센과 병용 시 암세포 생존율을 70% 이상 낮추고 종양 크기를 79%까지 감소시켰다.

아울러 네수파립은 특정 암종에 국한되지 않는 '다암종 항암 신약' 가능성까지 갖췄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병용요법, 환자군 확장 등으로 네수파립 적용 범위를 보다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청하 기자

새로엠에스, '건강배급소' 서비스 선포

맞춤형 영양제 추천·공급

일동제약그룹의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새로엠에스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솔루션 '건강배급소'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건강배급소'는 개인 건강 상태, 식습관, 기존 질환 및 약 복용 여부 등을 분석해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공급하는 서비스이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따라 소분·조합과 안전 관리 및 판매 기준을 충족해 운영된다. 또 국가 면허 자격증을 보유한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로서 상담을 제공

한다.

새로엠에스 '건강배급소' 웹사이트에서 건강 관련 체크리스트 설문을 진행하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 섭취 조합을 설계해 준다. 희망하는 섭취 방식, 횟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여러 가지 영양제를 1회 섭취분만큼씩 1팩에 모아 소분 포장할 수 있다. 집에서 간편하게 수령 가능한 주문, 결제, 배송 서비스도 연계됐다.

아울러 새로엠에스는 임신부와 같이 특정 시기별로 맞춤 영양 설계와 섭취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 층을 중심으로 약사와 영양사 등 전문가 역할이 강조된 서비스라는 점을 부각해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